

자연과 인간,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서
디자인을 배우는 곳

환경조경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http://la.khu.ac.kr/>



개인 정원의 디자인에서부터 광역녹지계획까지

1976년 개설된 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우리를 둘러싼 건조 환경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유용하며 건강하게 디자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육기관입니다. 작게는 개인 정원의 디자인에서부터 크게는 도시계획 규모의 광역녹지계획까지 디자인 분야로서 조경학의 대상은 매우 넓습니다. 조경학은 공원, 광장, 가로 등 도시의 공공공간과 기반 시설, 그리고 기념공간과 각종 주거단지계획 등 우리의 일상이 일어나는 모든 외부공간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다른 대학교의 '조경'관련 학과와는 다르게 예술·디자인계열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경 행위의 본질을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으로 판단하고 학과의 디자인 위주의 커리큘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학년부터는 매 학기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수업의 주제를 다루면서 디자이너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폭넓은 주제의 과목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환경조경디자인학과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이해,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 등 폭넓은 주제의 과목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학년에서는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예술과 디자인의 이해, 현대미술사, 환경조경학의 이해 등 전공기초과목과 더불어 본교 후마니타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디자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전공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조경디자인랭귀지, 조경수목 및 관리학, 서양조경사, 조경계획학, 컴퓨터조경디자인, 동양조경사, 조경기초디자인, 지형디자인, 공간구성형태론, 조경배식학 등의 수업을 통해 조경가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기회를 가집니다. 3학년에서는 도시조경설계, 여가관광지계획론, 조경공학, 정원예술론, 단지계획 및 설계, 도시공간디자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선과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

인론, 조경시공 및 적산학, 경관정보학, 캡스톤디자인기반융합프로젝트1 등 보다 심화된 수업을 통해 보다 통합적으로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능력을 익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면, 캡스톤디자인기반융합프로젝트2, 환경생태계획론, 공원예술론 등의 수업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해 환경과 경관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사회의 변화와 시대에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부터 새롭게 개설된 캡스톤디자인기반융합프로젝트1, 2를 통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실험적인 디자인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경공학이나 경관정보학에서는 첨단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공간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미래지향형 교육을 위한 시설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에는 학생들의 강의실과 실습실에 PBL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전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내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공간은 수업 중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 교육환경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희대학교 출신의 젊은 조경가들

환경조경디자인학과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조경 및 건축설계사무소, 환경디자인회사, 시공회사, 대기업건설사, 공기업 및 공무원과 각종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진출하여 각 분야에서 개성을 빛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과 서울식물원의 '겨울테마정원', '서울숲 어린이정원' 등을 디자인한 (주)그람디자인의 최윤석, 경정환 소장, 디자인과 시공을 넘나들며 장인정신이 깃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주)조경디자인이레의 조용철 소장, 예술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

마당더랩의 오현주 소장 등이 대표적인 경희대학교 출신 젊은 조경가입니다.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유수의 건설사와 전문 시공회사에 본교 졸업생들이 주요 임직원으로 많이 진출해 있으며, 내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공기업과 주요 지자체의 다양한 공직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다른 디자인 전문분야와 비교한 조경학만의 특징

무엇보다 자연과 인간의 문화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디자인 분야이다 보니, 학생들이 자연 및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가 다루고 있는 ‘경관’과 ‘환경’이라는 디자인 대상은 물리적인 규모에서도 타 디자인 분야와 비교해서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 디자인 대상의 성격 또한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자연환경, 인공 환경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디자인의 과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게다가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과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소양의 함양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 및 학과차원에서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학기 및 방학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장학습, 즉 인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짧게나마 실무 경험을 하는 것이 취업뿐만 아니라, 실천적 학문으로서 조경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동문회사를 포함 유수의 조경디자인 회사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에게는 기회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